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누가-사도행전의 신학

세션 14, 피터슨, 사도행전의 교회, 1부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피터슨, 사도행전의 교회, 1부입니다.

우리는 누가와 신학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합니다.

주님을 찾자.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기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일하시도록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FF 브루스(Bruce)의 새로운 국제 신약성서 주석에서 사도행전에 대한 소개를 보았고, 데니스 존슨(Dennis Johnson)의 사도행전 메시지에서는 많은 중요한 주제와 아이디어가 포함된 탄탄한 소개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그럼, 개요에 앞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두 권의 책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이지만 세 가지가 두드러집니다. 첫째,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아왔듯이, 누가의 서문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글을 쓴 의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프롤로그가 “아마도 두 권으로 된 책의 두 부분을 모두 언급하려는 의미일 것”이라는 하워드 마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누가, “역사가이자 신학자, 40페이지. 또한 사도행전의 서문에서는 누가복음을 “첫 번째 이야기”라고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1~3. ESV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첫 번째 책에는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다루었노라. 고난 받으신 뒤에도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둘째, 누가-사도행전은 복음이 끝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서문 누가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인용문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옮겨지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눅 24:51).

셋째,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실제로 하나의 단위인 세 번째 이유이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 끝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기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49.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의 증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지만 두 부분으로 함께 한 작품인 누가 하이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개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준비시켜 증거하게 하신다(행 1장). 초대교회의 메시지(행 2:32~41). 초대교회의 활동(행 2:42~47).

초대 교회의 종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장.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행 10:34부터 48절).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전환이다. 성경 전체.

여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도 이방인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신다(행 13:44~52).

일곱 번째, 교회의 은혜와 연합, 행 15:6~11. 예루살렘 공의회.

여덟 번째 구절은 바울의 교회 사역의 예(행 2:18-3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행 28, 23-31장). 첫 번째, 성령께서 사도들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 4~11장.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부터.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신지라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가실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은 독자들에게 누가복음 끝 부분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도행전 1:4. 동일한 언어를 반영합니다(눅 24:49). ESV는 아버지의 약속을 번역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새로움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누가복음 24:49. 더욱이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을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연결시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5. 메시아가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예언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데, 이는 특이하다.

이 일은 네 복음서 모두에 나타나며 사도행전 1장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초기에 누가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16에서 그런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16입니다. 메시아가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예언.

누가복음 24장. 아버지의 약속과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 예수께서 요한의 예언을 연습하시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요한의 예언을 반복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즉, 복음서는 사도행전, 특히 누가복음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그들은 복음의 정의 중 일부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일부를 담고 있어야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떻게 불완전할 수 있습니까? 네 가지 모두 메시아가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다고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복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됩니다. 이 성취 자체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여행한 유대인 순례자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사도들을 충만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여 듣는 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각 사람은 자기 모국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4부터 12까지.

베드로는 그들이 들은 것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인용.

요엘 2:28~32.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에 놀라운 일을 베풀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한 제자는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온화하게 꾸짖으시고 예언이 성취될 날짜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초점을 재설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행 1:6, 7. 대신 세계복음화에 전념하라는
것이였다.

사도행전 1: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8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 대한 증거를 의미한다는 것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흠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증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윌리엄
라킨(William Larkin)은 그것을 명령이자 약속이라고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과
전도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또한 복음의 발전에 대한 지리적인 개요를 제공하여
사도행전의 개요를 제시합니다.

데이비드 피터슨(David Peterson)은 그의 사도행전 신약성서 주석에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과 개념을 되풀이하십니다.”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보존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땅 끝까지 열방의 빛이 되라는 이스라엘의 소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Peterson은 사도행전 1장에서 Tidesh, 예수의 승명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인용합니다. Harvard Theological Review 79, 페이지 286.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이 신성한 계획이 성취될 방식에 대한 예언이자 약속입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줍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 2-7장.

그런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8-12장. 그리고 땅 끝까지, 13-28장.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구름을 타고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의 방해를 받았는데, 그들은 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때로 성경은 유머스럽습니다. 사도행전 1:9-11.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바로 그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하였느니라. 11절에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의미는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분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준비시키고 위임하신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교적이고 종말론적인 사람들이다. 바흐는 교회를 위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궁극적인 목표를 논의하면서 이러한 통찰을 강조합니다. 인용하자면, 지구의 끝이라는 문구는 모든 사람과 지역을 포함하는 지리적, 민족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소명은 선교적 방향과 종말론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닫기 인용문, Darrell Bach, 사도행전, Baker의 신약성서 65페이지 및 66페이지 주석.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사도행전의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2:32-41에 있는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내내 피터는 리더였습니다. 아, 그 사람이 좀 멍청한 말을 하더군요. 그는 결코 십자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린 하녀 앞에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도 거울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깨뜨리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원했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완고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세 번이나 확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줄곧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새롭고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2-41에는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설교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누가 자신의 말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29절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것을 알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리라(삼하 7장). 그가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의 육체는 부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것은 사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편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 자신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증거하며 계속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해 전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약 백성이 되었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삼천 명이 믿는 오순절 날에 이것을 이미 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32절을 인용하여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이 인용문의 끝부분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좋은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행 2:21, 요엘 2:32 참조).

신약성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 구약성서 인용문의 주님을 주 예수로 해석합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바로 다음 말이 증명하듯이, 예수님은 초대 교회 메시지의 중심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와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증거하신 사람이니라 사도행전 2:22.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 청중이 잘 알고 있음을 호소합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즉시 문제의 핵심으로 가서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것을 시편 16장, 사도행전 2장에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제시합니다. :25-32.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로서 사도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인용하자면,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가까운 인용문(32절).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후 계속해서 그분의 높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그의 부활과 함께 그의 승천, 세션,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는 일(33절)이 포함됩니다. 그는 시편 110:1에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34-35.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에 관해 자신이 전한 소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36절).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사도행전에서 반복한 패턴을 제시합니다.

같은 문장에서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십자가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입증된 예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입증된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대조합니다. 이 패턴은 요엘 2:28-32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 맨 처음 부분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 이 예수를 당신이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23-24. 베드로는 36절에서 이 패턴을 강력하게 반복합니다.

“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의 청중들은 예수의 십자가형에 공모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어
공개적으로 그를 주이자 메시야로 선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로 역사하실 때, 사도들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마음이 찢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7절.

피터는 응답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8절.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살해하는 데 한 몫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도들은 베드로의 위안이 되는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위안이 되는 대답이었음을
나타냅니다.

FF Bruce는 그 대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베드로는 지금도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메시야로 고백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은사입니다.

FF 브루스(Bruce), 사도행전, 신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 주석, 75페이지. 이 구절은
질문을 제기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간략히 다루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제안에 대한 합당한 응답으로 믿음이 없는 회개가 언급됩니다.

둘 다 함께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 회개, 믿음이 결합된 예를 보려면 사도행전 19:2 및 20:21을 참조하십시오. 행 19:2, 20:21.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개(행 5:31, 11:18) 또는 믿음(행 15:9, 26:18)이 다른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한번 더. 둘 다 함께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나 믿음 중 하나가 언급되어 다른 하나를 암시합니다.

함께, 행 19:4, 20:21. 오직 회개뿐이다, 5:31, 11:18. 오직 믿음, 15:9, 26:18. 이것은 베드로가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즉 믿음이 포함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베드로의 말을 바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유아나 성인 모두에게 세례 거듭남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이 본문에 기초하여 그러한 포함이 가능하지만, 이는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과 모순됩니다. 데이비드 피터슨(David Peterson)이 세례에 관해 쓴 글은 정확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피터슨, 사도행전 155.

그의 주석은 교육받은 평신도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 책은 많은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정말로 가고 싶은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각주와 함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됩니다. 셋째, 앞서 말한 베드로의 말과 같이 이 약속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아마도 그것을 제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구원으로 부르심으로 그들의 이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었습니다. 넷째,

오순절의 명령과 달리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은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38절. 데이비드 피터슨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 문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인용하자면, 다른 상황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물침례보다 앞선 경우도 있고 뒤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 8:11, 8:14-17, 9:17-18, 10:44-48, 19:5-6. 한번 더. 영의 은사는 물침례보다 먼저 오기도 하고, 침례 후에 오기도 합니다.

8:11, 8:12, 죄송합니다, 그리고 14:17, 9:17-18, 10:44-48, 19:5-6. 놀랍게도 성령께서 베드로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이 부패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40절)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날에 약 3천 명이 그들에게 더해졌습니다(41절).

이것은 초대교회의 큰 성장에 대한 누가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 중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이 구절은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가정된 것처럼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주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려고 삼일 만에 그분을 살리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행 5:31).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오른손에 높이서 지도자와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5:31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누리고 기독교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고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보다 성령에 관해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앞장서지만, 전체 교회와 각 교인이 이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라킨의 말은 확실히 옳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증인이 됩니다. Bill Larkin, 사도행전, 41페이지. 모든 회원이 증인이 되는 예는 사도행전 14장 2절과 3장 22절, 15~18절,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4:2, 3, 22:15부터 18, 20장.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세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활동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몇 가지 중요한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사도행전 2:42의 초대교회.

힘을 써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참여한 일들입니다. 활동이 공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주도권도 있었지만, 함께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그들 각자는 그리스도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누렸고, 그것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나누고, 성찬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 활동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초기 신자들은 사도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 전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다루면서 보았듯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요엘서 2장, 시편 16편, 시편 110편의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교에서 베드로의 말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을 때,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느니라. 그의 설교는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청중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관해 권고했습니다.

성경과 베드로가 사도로서 전한 말은 모두 신학과 윤리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말로 된

신성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적 메시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언적 선언문도 똑같이 계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예언과 사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과 베드로가 사도로서 전한 말은 모두 신학과 윤리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가 말한 모든 것이 그런 식이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피터 부인이 피터에게 쓰레기를 밖에 버리라고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로서 하나님을 대변할 때 그들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였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사도적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둘째,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데 헌신했습니다. 신약성서의 교제 개념인 헬라이어 코이노니아(koinoni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지하실에서 커피와 도넛을 나누는 오늘날의 교제 개념에 부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텍스트를 고려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9.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명예를 메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아니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유명한 축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긍휼이 있거든 빌립보서 2장 1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과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사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3, 5, 7. 이 신약 본문에서 교통은 신자들과 공유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아버지와, 요한일서 1:3, 아들과 동역 관계를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9. 요한일서 1:3, 성령. 고린도후서 13:13.

빌립보서 2:1.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과 협력할 수 있다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야. 요한일서 1장은 신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의 교통과 신자들의 다른 신자들과의 교통을 서로 결합시키기 때문에 특히 교훈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도행전 2:32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신자들이 나누는 교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성과의 이러한 교제에서 파생된 우리는 또한 서로 교제합니다. 사도행전 2:32. 갈라디아서 2:9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므로 초대 신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그들과 하나님의 동역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영생과 죄 사함에 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참으로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교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이 때때로 자발적으로 소유물을 공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 신자들은 빵을 떼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글에서 빵을 떼는 일을 세 번이나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24:35. 이에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겪은 일과 그 뜻과 빵을 떼실 때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셨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4:35. 사도행전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42. 행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이튿날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밤중까지 계속 이야기하였다.

사도행전 20장과 7절. 장황한 설교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데이비드 피터슨(David Peterson)은 “떡을 떼는 것”이 주의 만찬을 의미한다는 점을 부인하고, 대신에 사도행전 2장 42절이 “가장 명백하게 초기 제자들이 그들의 집에서 함께 나누던 공동 식사를 가리킨다(46절)”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61페이지에 대한 피터슨의 주석. 이것은 46절에서 제자들이 집에서 집으로 떡을 떼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32절, 특히 20절과 7절의 올바른 해석인가? 나는 누가복음 24장 35절도 함께 식사를 언급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복음 24장의 길에 관한 말씀에서 주의 만찬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빵을 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식사입니다. 다른 신약 학자들은 2장 32절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27장에서는 분명한 언급이 있다고 봅니다. 브루스는 4장 34절 32절에 관해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여기서 빵을 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만찬을 정기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까운 인용문으로 표시됩니다. FF Bruce, Book of Acts, 79 페이지. 27에서 그는 빵을 떼는 것이 아마도 성찬례가 거행되는 과정에서 친교 식사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Bruce, Book of Acts, 408. Marshall은 4장 32절의 빵을 떼는 것을 바울이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누가의 용어로 이해하고, 20장과 7절에서 같은 방식으로 빵을 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Howard Marshall, 사도행전,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y, 대체 권, 83 및 325 페이지. 우리는 4:32 이

아마도 친교 식사로 지켜진 주의 만찬을 언급할 것이며, 20 절과 7 절은 확실히 교회적 맥락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과 7절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피터슨은 J. Boehm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각주에서 Boehm의 결론을 인용하면서 공정성을 나타냅니다. 인용하자면, 바울의 사명과 관련된 20절과 7절의 식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과 20절에서 주의 만찬으로 묘사한 제의적 식사여야 합니다.

Peterson, 사도행전, 161페이지, 각주 109, J. Boehm, 신약 신학 사전, 3권, 731페이지 인용. Kittel, 3731. 넷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적 신학에 대한 갈망을 공유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나누고, 함께 성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라킨은 누가가 기도를 교회 생활의 필수 요소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인도와 힘을 받아 그분의 왕국 사업을 수행할 때 필수적인 연결 고리입니다.

Larkin, 사도행전, 61페이지.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다루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피터슨, 사도행전의 교회, 1부입니다.